

민주당, 공천 작업 속도 내야 지지율 하락 막는다

하위 10%·20% 통보 반발 확산 김한정 “부당한 낙인 경선서 극복” 송갑석 “재심 없이 경선 치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50여일을 앞두고 있던 공천 논란에 휘말리면서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경선 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하위 20%’ 명단에 비명(비이재명)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이들의 탈당과 반발도 이어지면서 총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세균·김부겸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민주당 원로들도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공정한 공천관리’를 요구했고, 친명 내부에서도 “공천 과정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1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7-1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2.8%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이어 민주당(29.6%), 무당층(14.6%), 개혁신당(5.6%), 기타 정당(4.4%), 녹색정의당(1.6%), 잘모름·무응답(1.4%) 순이었다.

무당층은 지난 1년간 조사에서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해 주목된다. 직전 조사였던 22.7%에 비해 6.7%p 떨어진 수치다. 이에 따라 정가에서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무당층 일부가 국민의힘이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만 내세울 뿐 총선 전략 및 공약 부재와 공천 과정의 불협화음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하위 20% 통보를 받은 김영주 부의장은 앞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또 비명으로 분류되는 박용진·윤영찬 의원이 경선 과정에 30% 감산하는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나란히 21일 ‘탈당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해 경선을 치르겠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날 자신이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탈당이나 재심 신청 없이 경선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이날 ‘하위 10%’ 통보 사실을 밝히며 “부당한 낙인과 불리함을 탓하지 않겠다. 경선에서 이겨 내 소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주당의 공천 논란에 대해 당 안팎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야권 통합비례정당 창당 경로를 공유하고자 21일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는 논란에 휘말린 공천 과정을 두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를 성토하는 장이 됐다. 현역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한 비명계가 잇따라 ‘커밍아웃’을 하며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비명계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거 발언권을 얻어 당 지도부를 맹비난했다.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우리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공정한 공천관리를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일찍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공천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친명인 민형배(광산을) 의원이 지난 2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광산을)재심 과정에 어떤 힘이 작동한 건지 아무리 살펴봐도 뜬금없는 후보가 살아났다”면서 “명백한 불법 해당 행위라도 ‘작업’하면 버젓이 사면되는가 보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우선 전화면접(10.3%), 무선 ARS(89.7%)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3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20년 만에 전면 개편”

울산에서 민생토론회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방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꾀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대해선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가 집중

지정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윤 대통령 지적이다.

그린벨트가 소멸 우려에 대응해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지방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적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 방침과 관련해선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 받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지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 붙어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등을 포함해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농업시설 입주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농지 이용규제 혁신이 농업 첨단화와 함께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지방 이전 중소기업, 가업 승계 상속세 면제”

윤재욱 국힘 원내대표 국회 연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과 경기도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 행정관할권을 조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여당이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본격화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 지역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 결단은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 박스’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시공문의
사무실 광주 서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 광주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